

영가천도에 대해 교계에서는 '청화스님 신드롬'이 일 정도로 도력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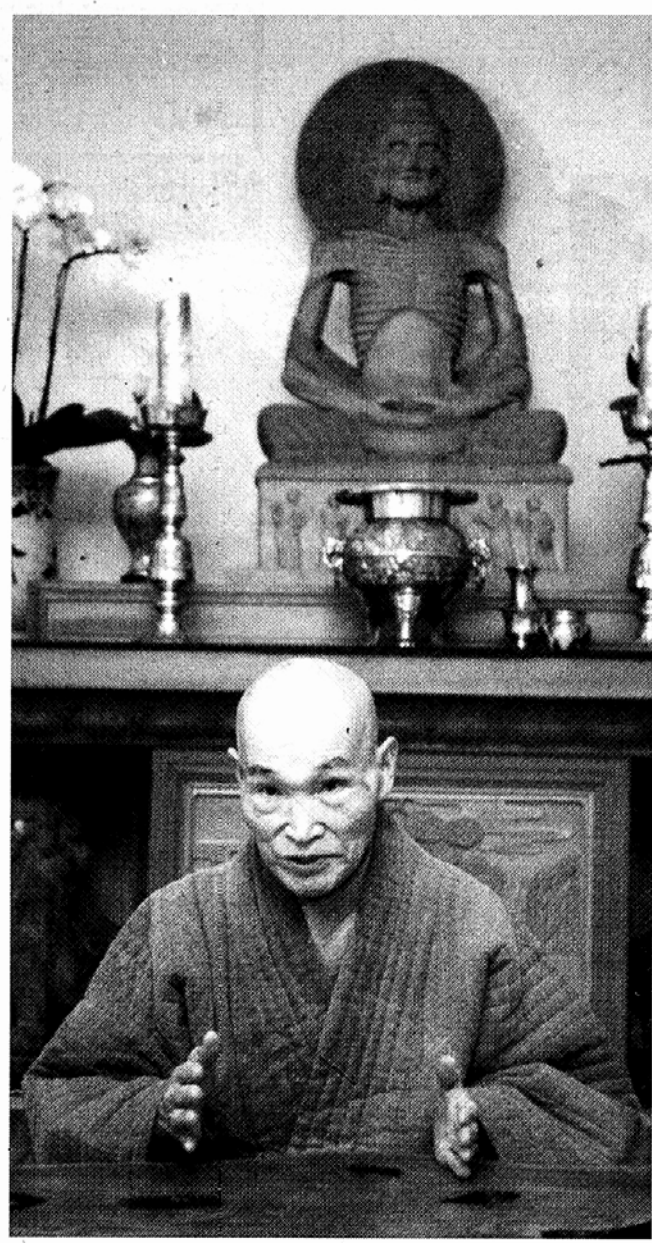
▲천도의식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생명은 본래 부처이고 부처로 되어야 합니다. 설사 어떤 상황이라도 부처가 됩니다. 그런데 극락세계 가는 것을 모르고 죽은 사람은 저승길이 어두워 헤매게 됩니다. 금생 60~70년동안을 몸뚱이와 의식을 같이해 살았을 때 뒤와 화합돼 극락에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미처 업을 못녹인 습관성으로 업식이 남아 있습니다. 업식이 당분간 존재하면 괴롭습니다.

개나 돼지 등 짐승처럼 생활하면 업식이 홀리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 업식으로 해매는 영혼을 타일러서 인도하는 것이 천도의식입니다. 금생에 못되는 미혹된 영혼을 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귀신을 천도하는 데는 청정도량인 절에서 바른 계행으로 조심조심 청정히 하는 것이 의의가 큼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절에서 하는 것으로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잡에서 고인의 위패를 적고 향을 피운 뒤 업식을 소청해드립니다. "영가시여 부처님 가피력으로 나오라"고 해서 <반야심경>(법심계) 등을 독송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가들에게 인연생으로 왔다가 인연생으로 간 곳이고 따라서 누구도 원망해서는 갈 것을 못간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극락세계에 왕생하도록 독경하는 것입니다.

스님때까지를 순수한 선시대 이른바 순선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법문을 가장 중요한 권위로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안심법문입니다. 이 가르침을 선양하고 진작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은, 우주의 도리대로 본래 내가 없는 무이기 때문에 내가 없다고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내 집이나 내 소유물이나 내 절이나 내 종단이나 이런 것도 본래가 없다고 생각해 버리면 참 편합니다. 자기 문중이나 절 때문에 애고 싸울 필요도 없는 것이니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승단이 바르게 서고 이 법향이 세계로 퍼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선수행도 한국불교 교단사를 돌아보면 교학을 가르쳐서 선(禪)의 갈래 즉 깊고 알음을 안 후에 참선을 시켰습니다. 교에 따라 일만하고 합리적인 도리에 따라 실천했던 것입니다. 간화선만이 최고라는 바깥 마른 논리는 위험한 일입니다. 간화선이 한국불교에 수순한 위치로 훌륭한 참선수행법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짚어보면, 임제종 간화선은 종파분별이 극에 달했던 중국 송나라때 분열상의 한 종파로서 고려 말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조선조 배불정책으로 더 이상 중국과의 교류가 단절된채 오늘날까지 내려온 참선법입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은 원나라를 거쳐 수백년을 각기 소견으로 분열다가 마침내 명나라때 가서 하나의 도로 종합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간화



○청화스님이 주석하는 성문사 조선당에는 고행상이 모셔져 있다. 마음을 꿇들어 보는 듯한 스님의 눈빛이 지극 수행의 무게를 짐작케 한다.

계 됩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전쟁 지진 등 벌벌 일이나 일어나도 차츰 좋은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젠가는 다다르게되는 성불의 길에 가장 지름길이 참선입니다. 유일한 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참선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수행에 진전이 없는 것은 삼매에 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깊은 명상에 들어가 목적이 보이고 초월하게 됩니다. 탁수를 가만히 두면 맑은 물만 뜨는 이치와 같습니다. 고요히 맑고 또 맑아하는 것입니다.

—스님께서 주석하시는 이곳 조선당(祖禪堂) 법당은 아주 특이하게도 부처님 고행상을 모셔놓았습니다. 스님께서는 40여년 힘든 고행을 하신 선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마음을 꿇들어 보시는데는 훌륭한 눈빛이 수행의 무게를 짐작하게 합니다. 공부하려는 이들에게 스님께서 하신 고행을 권하시는지요.

▲고행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게을리 마음되기 알맞은 것이어서 지극

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오히려 제대로 못해서 안타깝지요.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닌데 몸을 그렇처럼 두면 게을리하기 십상입니다. 몸으로 고행을 정해야 하는데 남 눈에는 고행으로 보이는 모양이나 내게는 온몸이 시원스러울 정도로 편안한 생활방식입니다. 장좌불와를 해보면 늙는 것보다 정상 각으로 앉는 자세가 가장 편합니다. 일체 여래의 상징적인 모습이 가부좌입니다. 망상이 일지않고 마구니가 봐도 피합니다. 그러나 어거지로 하면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개별적으로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요. 다만, 부처님 계율만은 도덕적인 윤리로써 재가자들이 모두 지켜야 합니다. 출세간을 막론하고 게을리를 지키면 선신이 복돋아주고 악신이 물러갑니다. 결코 나는 혼자라는 생각을 마시기 바랍니다.

대담=위명란 부장 (yryui@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희림스님이 쓰는 이련스님

■원각스님

요즘 나는 늘상 컴퓨터 앞에서 지낸다. 컴퓨터로 글을 쓰고 컴퓨터로 신문을 보고 독서도 상당 부분 컴퓨터로 한다. 컴퓨터가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사이버 법당도 만들 생각이다.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실감하는 것인데 요즘 세상은 그 변화가 너무나 빨라서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다. 시골에서 자란 우리 세대들은 어린 시절 호수물 밑에서 생활했다. 먼 길을 걸어서 학교를 다녀야 했고 마을 앞 사에는 다리가 없어서 여름 장마 때만 되면 물을 건너지 못해 학교를 못 가는 때도 많았다. 처음 출가하여 절에 왔을 때도 절에 전기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아니 산중 사람들은 70년대까지도 집집마다 전기가 없었다. 해인사 같은 큰 사찰도 70년대 중반이나 되어서야 전기가 들어왔다.

그 시절 어느 여름이었다. 나는 깊은 산중에 들어가 살고 싶은 생각 때문에 지리산을 찾았다. 쌍계사 객사에서 하루밤을 자고 걸어서 칠불암을 찾았다. 산골 다락 사이의 길을 걸어 올라가서 속속 길을 한참 걸으니 큰 감자밭이 나왔다. 그리고 통나무로 얼기설기 지은 움집 비슷한 집이 하나 있었다. 나는 길을 잘못 들어 화

기로 했다. 워낙 깊은 산중이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산중의 양식은 감자가 전부였다. 그러자니 낮에는 하루종일 밭에 나가 일을 해야 했다. 주지스님은 힘이 천하에 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당했다. 그렇게 힘이 좋은 스님과 같이 맞추어 일을 한다는 것은 여간한 일이 아니었다. 며칠을 하고 나니 몸살이 날 지경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솥불 하나를 켜놓고 좌선을 하는데 시계도 없고 하니 몇 시에 일어난 것인지도 모를 정도였다. 좌선을 하다가 날이 밝아오면 원각스님을 따라 아침공양을 짓는데 그 시각 주지스님은 장작을 패는 등 잡기도 쉬운 법이 없었었다. 이렇게 밭에 먹고 일하고 하루를 보낸 뒤 좌선이 되면 또 주지스님과 원각스님을 따라 좌선을 했다. 비가 오는 날은 밖에 나가 일을 못하는 대신 원각스님과 주지스님은 경전을 읽거나 옛 조사들의 어록을 읽었다. 일을 할 때는 흡사 농사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일을 했다. 그러면서 좌선을 게을리 하는 법이 없을 뿐 아니라 경전을 읽고 어록을 읽는 실력이 강단에서



그림·문병성

강화를 하는 실력 못지 않았다. 그 해 여름 무척 힘들게 지냈지만 힘들게 지낸 만큼 공부에 도움이 된 것은 할 할 잊고 큰 보람도 얻었다. 특히 물리도록 먹은 감자밭을 내내 잊을 수가 없다. 진정한 공부인의 공부란 이렇게 힘든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칠불암은 옛날 그 시절하고는 달리 많이 변했다. 세상이 다 변하는 데 칠불암이라고 어찌 변하지 않았을까. 불사를 주관하신 통광스님이 원력을 세워 중창불사를 했다. 저 유명한 아자방도 복원을 해 놓았다. 그 결과 아주 훌륭한 사찰로서 지리산의 제일 수행도량이 되었다. 이렇게 깊은 산중에 어떻게 이런 큰 불사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다. 모두가 현대문명의 힘일 것이다. 잘 지어진 선원에는 수십명의 눈부른 남자들이 움직여 공부하고 있다.

세상도 변하고 그 변한 만큼 사찰도 변해 깊은 산중에도 온갖 현대문명이 다 들어와 있으나 은근히 옛 모습이 그리워지기도 한다. 그 해 여름 내내 같이 농사짓고 정진하던 원각스님이 그리워지고 같이 먹던 감자 맛도 새록새록 그리워지는 것이다.

감자밥 먹으며 수행하던

20여년전 칠불암 여름한철

전민들이 사는 곳을 찾아온 줄로 알았다. 배도 고프고 해서 움집을 찾아 들어갔다. 그곳에는 뜻밖에도 원각스님이 계셨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칠불암이라는 것이다. 일찍이 암울한 일제치하에서도 용성스님이나 금오스님 같은 당대의 큰 스님들이 남자시절 정진했다는 그 유명한 칠불암은 그곳에 없었다. 눈 덮힌 얼음살판에 한번 군불을 때면 적어도 보름 이상 방안이 따뜻했다는 아자방도 건물을 없고 주춧돌과 아자형의 구들만 남아 있었다. 옛 선사들의 자취는 간 없이 구도의 열정을 안고 찾아온 젊은 남자의 마음을 슬슬하게 했다.

당시의 칠불암은 그랬다. 8.15 이후 지리산은 남부군의 활동 본거지였다. 남부군들의 빨치산 활동은 6.25 직후까지 이어졌다. 지리산의 마지막 빨치산 정순덕씨는 60년대까지 활동을 했다고 하지 않은가. 그러다보니 지리산의 유서깊은 사찰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중에서 영은사, 연곡사, 칠불암 등의 국보급 사찰들이 미군들에 의해 폭격되어 흔적도 없이 완전 소멸되었다. 그렇게 원전 소멸당한 칠불암을 화천민들의 움집 비슷하게 지어놓고 스님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다.

주지스님은 관묵스님이었고 원각스님이 같이 살고 있었다. 이름이 짧아지 건물은 통나무로 지은 움집이고 신도도 없는 삼산 일찍이 팔공산 동화사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 선배였다. 주지스님은 도통 말이 없었다. 원각스님에게 허락을 얻어 방부를 들이고 그해 여름 나는 칠불암에서 살

부처와 나 둘 아님을 믿으세요
출·재가 막론하고 게을리지마

—서구에서 선불교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데, 중국이 공산화된 지금 우리나라는 선불교의 중추격임에도, 세계적 교류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스님께서는 미국에서 30여년 머무시기도 하셨는데, 세계적 흐름에 부응키위해 우리 불교가 어떻게 가야 하겠습니까.

▲승가 생활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는 인간의 진정한 생활 표본입니다. 승가 생활의 근본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무아 무소유 생활 아니겠습니까. 달마스님때부터 6조 혜능

선 목조선 열불선 등 고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열이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하는가 하는 자세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적인 자세만 여의지 않고 분체를 여의지 않을때는 그 그대로 수순한 대승법이 참선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달마스님때부터 6조까지는 이런 이들도 없이 오로지 마음공부만 했습니다. 부처님 법을 범부소견으로 무엇이 옳네 그르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불교가 수행의 중요성을 찾고 회귀하고 있는 흐름속에서 깊이 성숙해야 할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불자들에게 가장 부족한 점은 삼매에 못드는 것입니다. 이는 불자가 아니라도 현대인들에게 다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현실이 바쁘고 복잡하지만, 반드시 가야하고 또한 자신도 모르게 가게 되는 것이 성불입니다. 더디고 빠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꼭 성불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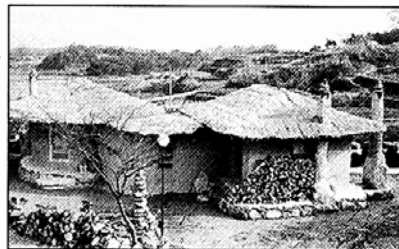
○승사 금타스님이 수행의 요체를 도면화 해 제작한 <수능업 심매도>를 설명하고 있는 청화스님.

왕토 흙벽돌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1. 건강, 장수주택 왕토흙집에 희소식!!

왕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왕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항토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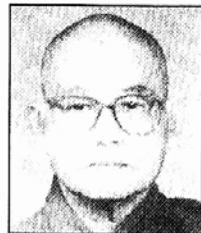
- ① 왕토 주택 토굴시공
- ① 토굴 현장 출장감독
- ① 왕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항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미안마 최고의 선지식
우 뼤디따 스님 향한 위빠사나 수련 안내

붓다와 담마와 상가에 귀의합니다. 위빠사나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대각(大覺)을 성취하셨던 수행방법이고, 또한 45년의 교화기간 동안 수많은 구도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셨던 가장 청정성(正統性)있는 방편(方便)인 우 뼤디따 스님의 사시입니다. 이 위빠사나 수행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계신 미안마의 우 뼤디따 스님께서 금번에 방한하시어, 아래와 같이 위빠사나 수련 법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육성법문과 개인 지도를 통해 참가자 여러분의 수행에 큰 진전이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1. 기 간 : 2000년 4월 20일 (목) 오후 3시 ~ 4월 30일 (일) 오후 1시 (10박 11일)
2. 장 소 : 경기도 남양주시 봉인사·한길정진원
3. 내 용 : 우 뼤디따 스님의 법문과 직접 개별 지도에 의한 위빠사나 수행
4. 동참금 : 30만원 (₩300,000)
5. 준비물 : 수행에 적합한 복장, 세면도구, 필기도구
6. 문의처 : Tel. (0346) 574-5585 (봉인사 중무소) Fax. (0346) 574-0808 E-mail. bonginsa@soback.kornet 21.net

▶ 참가를 원하시는 분께서 위의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일단 접수한 뒤 동참 거부와 송금 방법을 추후에 개별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수련 대회와는 별도로 우 뼤디따 스님의 대중법문이 4월 30일 (일) 오후 2시 용인의 관음사(0335-332-1133)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봉인사·한길정진원

경북 청송의 관음기도 영험도량
샘재 영천암(靈泉庵)에서 불자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귀의삼보하옵고 스님은 지난 1988년 전기누전으로 인하여 법당이 전소된후 새로이 조립식으로 임시법당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필살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금 현재도 부처님 좌대를 비롯해 후불탱화와 좌우보좌 보살님도 모시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불자님께서 오는 사찰초파일 부처님 오신날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루속히 영천암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등불 한 등이라도 밝혀 주시다면 큰나 큰 도움이 되겠사오니 부디 도와 주시옵기를 7월달인 삼천배기도를 지심으로 드려서 모신 우리 영천암 부처님께 남다른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복과 덕이 부족해서 늘 여러 불자들에게 염려를 많이 끼쳐 드려서 참으로 송구하오니 앞으로 반드시 사회사업을 해서 불사회원을 할 수 있도록 남다른 관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제가 이 불사를 성취하여 저 수미산 깊은 한을 풀 수 있도록 하루속히 백고좌법회를 꼭 꼭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이 애절하고 간절한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면 제가 살아 있어도 어찌 살아 있다고 하겠사오며 불사를 성취하면 저는 죽어도 신 것과 조금도 닮음이 없겠사오며 저 사해바다 같은 한을 풀도록 부디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영천암에 도사실을 만들고자 하니 불자님 가정에서 대업신 불사와 법문 카세트 테이프, 법문 비디오 테이프, 불교관련CD가 있으신 분께서는 영천암으로 기증을 해 주시면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사오니 저 혼자의 힘으로 도사실을 열기가 어려우니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 등불을 밝히시는 분께는 일년내내 기도축원 해 드립니다.
※ 탁발 다니는 관제로 필름 내사시(來寺時) 미리 전화 연락 바랍니다.

경북 청송군 진보면 시랑리 548-3번지
샘재 영천암(靈泉庵)
전화문의(팩스겸용): (0575) 873-2724 휴대: (016) 521-2724
주지 박승만 합장
▶ 온라인입금 계좌번호 농협 : 711089-51-056599
▶ 예금주 : 박명희 우체국 : 700419-0136013

